

Architecture

The Architectural Review

Architectural Record

A+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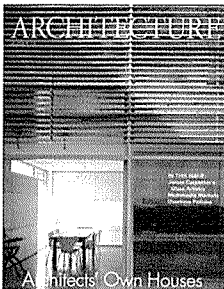
건축문화

신건축

Architecture

96년 12월호

12월호는 건축가들 자신이 설계한 주택들의 의미와 그 예들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아울러



유리 재료의 특징을 살리는 James Carpenter의 디자인 세계, 건축주와의 대화에서 그 중요성이 높아가는 컴퓨터 애니메이션, 그리고 건축설계사무소의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어 있다.

건축가 자신의 주택설계에 대하여

건축가에게 있어 자신의 주택을 설계하는 것은 큰 모험이기에 대부분은 남이 설계한 주택에서 살기 마련이다. 그것은 자신이 건축주인 만큼 남의 간섭없이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지만, 이는 바꾸어 말하면 그 모든 것에 대해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성되어 버린 자신의 주택 작품에는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것은 또한 자비로 새로운 건축가의 탄생을 알리는 기회로도 활용되어 왔다. John Soane, Victor Horta, Konstantin Melnikov의 주택들을 비롯하여 Frank Lloyd Wright, R.M. Schindler, Philip Johnson, Charles Moore 그리고 근래의 Frank Gehry의 자택 설계는 그 대표적인 예들이다. 그러나 결코 지울 수도 변명할 수도 없는 작품이 될 것이기에 그 건축을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

최근의 자택 작품들로는 ▶근대적 재료와 형태가 돋보이는 TEN Architects의 멕시코 노튼 주택 ▶이성적인 실험 작품이라 할 정도로 명확한 기하학적 구성이 강조된 O.M. Ungers의 독일 쾰른 자택 ▶버지니아 숲 속에 위치한 Peter Waldman의 자택 ▶Wright 전문 학자 Anthony Alofsin이 설계한 텍사스 자택 ▶극소적인 디자인의 뉴욕 Tsao & McKown 아파트 ▶철골조를 바탕으로 한 캘리포니아 Kappe+Tamuri Architects의 자택이 대표적이다.



TEN Architects의 멕시코 노튼 주택

James Carpenter의 유리 디자인

유리와 빛을 이용하는 속칭 "유리 예술가"로 알려져 있는 Carpenter는 건축물의 커튼 월이나 계단과 같은 건축분야에 많은 작품을 제작하였다. 모든 경우에 건축가와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건축물과 완전하게 통합되는 작품을 만들어

내고자 하는 그의 작품들은 특히 고도의 구조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건축적 가능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하와이의 퍼스트 하와이안 은행의 반사유리 벽면, 뉴욕의 밀레니움 빌딩의 부분 입면, 샌프란시스코 국제 비행장의 천정 유리 조각물 등의 대표작이 소개되어 있다.

건축설계사무소의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건축설계회사들의 대표 중 90%가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으로는 수지 타산을 맞추기가 힘들다고 고백한다. 그렇기에 건축계의 업무에서 야근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 되어버렸지만, 그것에 대한 시간외 수당은 그 결정방법이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고 노동법에도 위배되는 일이 많다. 조사에 의하면 정액봉급제를 채택한 설계 또는 시공회사의 42%가 시간외 수당을 시간제로 지급하지만, 그중 68%가 관련 법규에 명시된 평소 한배반의 수당 대신에 한배만을 지급한다고 한다.

멀티미디어 시장

영화나 게임에서 컴퓨터그래픽에 의한 공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면서 3차원적 공간에 대한 교육을 받아온 건축가들이 이 분야에 진출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졌다. 아울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별도로 컴퓨터그래픽 디자인부를 두어 설계의 표현수단으로 유용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View By View, Eyecandy, CORE, David Williams 3dMedia 등 대표적인 회사들과 그 작품들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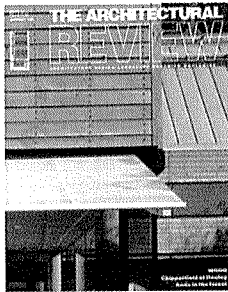
기타

▶뉴욕에 등장한 Rem Koolhaas 디자인의 소형 미술관 ▶Gehry에 의해 제시된 음악박물관 계획 ▶시카고 예술 재단에서 열린 항공 관련 디자인전 ▶베를린 시내에 등장할 Gehry의 수상복합건물 ▶건축가의 사회적 역할과 지위에 대한 기고 ▶신종 CAD 프로그램, 워크스테이션, 플로터와 그 기능들에 대한 간단한 안내 등이 게재되어 있다.

The Architectural Review

97년 1월호

1월호에서는 나무재료를 이용한 건축물들을 주제로, 역사와 지역적 기원과 Tadao And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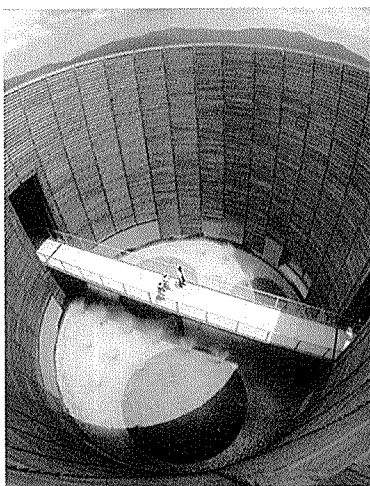


David Chipperfield의 작품 등 현대 건축의 예들을 소개하고 있다.

목재 건축

나무는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정감 어린 재료이다. 그것은 아주 초기부터 건축에 사용되었으며, 그렇기에 건축에 대한 우리의 생각 중 많은 것이 나무로부터 유래하고 있다. 도릭 오더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비례감까지도 나무의 형상으로부터 나왔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산림 지역 면적과 더불어 그 건축적 사용도 줄어가는 상황에서 목재가 갖는 의미는 더욱 강조된다.

최근의 우수한 목재건축작품들로는 다음과 같은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일본 효고 나무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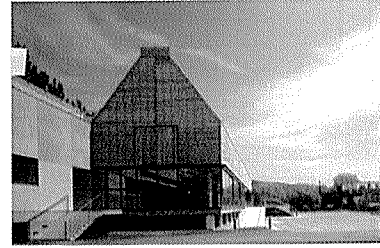
▶Tadao Ando의 일본 효고 나무 박물관
아시아 주변국들과는 다르게 일본은 비

교적 산림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그것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다. 식목일 45주년을 맞아 오픈된 Ando의 나무 박물관은 효고의 산림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것을 가능한 한 훼손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띠고 있다. 직경 46m의 큰 원추형으로 된 강한 기하학적 형태에, 그 표면을 덮고 있는 나무판들의 텍스처와 배열은 아주 중요한 요소로서 작용한다. 하늘을 향해 열린 이 원추와 그것을 가로지르게 되어있는 통로로 구성된 극소적이고 품위 있는 디자인은 방문자들에게 자연세계 보존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유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David Chipperfield의 영국 강과 배 박물관

지난 10년간의 해외 건축활동에서 습득한 경험과 디자인 과정, 건축재료에 대한 생각들(그는 건축 계획과정에서 재료의 선정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잘 활용된 이 작품에서 Chipperfield는 전통적인 건축형태에 대한 재해석, 지상 레벨의 입면, 배-홀에서 유리로 된 투명한 저층부 위에 놓인 육중한 나무 지붕 등이 주요 고려사항이었다고 말한다. 서비스 하는(받는) 공간 등 Louis Kahn의 킴벌 박물관에서 받은 영향이 드러나기도 하는 이 작품에서, 지붕은 참나무류의 옛 재료를 사용하여 앞으로 시간의 흐름을 더욱 아름답게 보여줄 것이다.

그 외에 ▶Walters and Cohen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더번 미술관 ▶Jensen & Skodvin의 노르웨이 로리 창고 ▶Burkhalter & Sumi의 스위스 쾰리히버그 호텔 증축 ▶Burkhalter & Sumi의 스위스 라우펜버그 학교 ▶Ross Barney+Jankowski Architects의 미국 일리노이 주 도서관 증축 ▶Bernard Desmoulin의 프랑스 프레주 전쟁 묘지 명상 센터 ▶David Mitchell과 Julie Stout의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택 ▶Bohlin Cywinski Jackson의 미국 뉴욕 주 아디론덱스 주택 ▶Blue Sky Architecture의 캐나다 밴쿠버 주택 ▶Terunobu Fujimori의 일본 도쿄 주택 등이 비교적 자세하게 소개되어 있다.



영국 '강과 배 박물관', (David Chipperfield Architects 설계)

인테리어 디자인

▶Wickham & Associates의 영국 음식점은 파리의 생동감 있는 옛 음식점들의 분위기를 살리고 있고 ▶Varis Arquitects가 설계한 바르셀로나의 화려하고 미국적인 풋볼클럽 바 ▶역시 Varis Arquitects가 설계한 은은한 분위기의 바르셀로나 레스토랑이 소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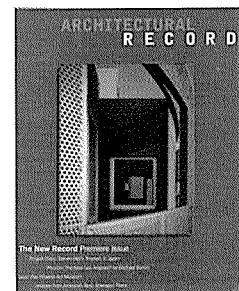
기타

▶아일랜드의 국립 미술관에 대한 설계 경기에서 Daniel Libeskind의 안을 누르고 당선된 Benson & Forsyth의 계획안 ▶주위 자연과의 조화된 건축을 자랑하는 뱅쿠버 중심가에 지어진 로마 콜로세움 형태의 공공도서관(Moshe Safdie 설계)에 대한 비판 ▶〈핀란드 건축과 근대주의 전통〉 등 최신 건축 서적에 대한 소개가 다루어져 있다.

Architectural Record

97년 1월호

새로운 형식과 디자인으로 바뀐 1월호에는 Steven Holl의 일본 치바 마쿠하리 주거 단지, F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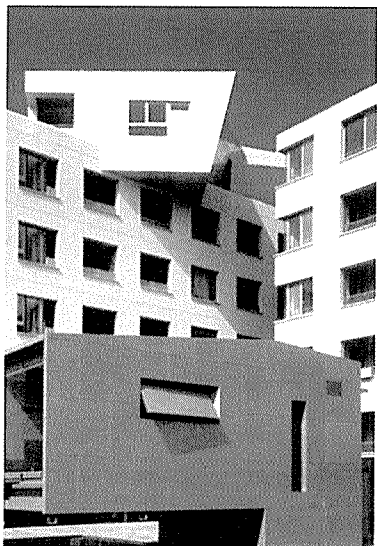


nau & Hartman Architects의 캘리포니아 티핑 빌딩, Tod Williams와 Billie Tsien의 피닉스 미술관이 근작 소개로 다루어져 있고, 미국의 성공적인 건축설계사무소들의 경영방법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건축물 종류에 따른 기획 특집에서는 근래에 다시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도심의 주거계획들을 다루고 있다.

최신 작품 소개

▶ Steven Holl의 일본 치바 마쿠하리 주거 단지 (설계 과정 일지)

80년대 말 미국 건축가로서 일본에서 작품활동을 한다는 것은 자국에서보다 더 큰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다는 것과 아울러 예술성에 대한 배려가 전통적으로 더 많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었다. 하지만 90년대에는 사정이 달라졌으며, 이 작품은 Arata Isozaki의 지휘하에 이루어졌던 후쿠오카 집합주거와는 아주 다른 과정을 통해 건축되었다. Isozaki와 같은 중간조종자가 없는 상태에서 Holl은 일본 건축주들과 직접 힘겹게 상대하면서 “고요하고 무거운” 건물군과 “동적이고 가벼운” 구조물들이 조합된 주거단지를 설계하였다.



▶ Fernau & Hartman Architects의 캘리포니아 티핑 빌딩

지상 주차장, 사무실, 주거, 정원을 복합시킨 3층 건물로, 근래 도심 디자인에서 지향되는 소규모, 복합 기능적, 보행자 위주의 친근한 건물의 성격을 두루 충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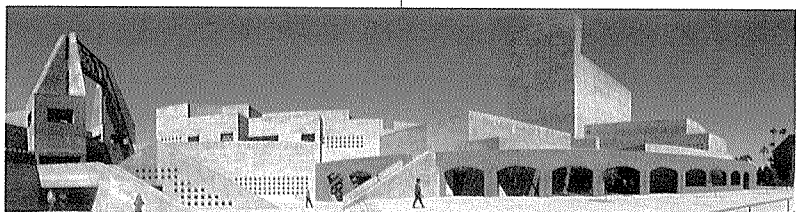
시키고 있다.



캘리포니아 티핑빌딩

▶ Tod Williams와 Billie Tsien의 피닉스 미술관

사막지역에 자리잡은 도시 피닉스에는 근래에 중규모의 현대 건축물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졌다. 최근 완공된 피닉스 미술관 증축안은 서남부 지역의 모티브들을 추상화한 형태를 차용하였으며, 피닉스 도시 건축의 독특한 특성을 확립하는데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피닉스 미술관

미국의 성공적인 건축설계사무소에 대하여

건축설계사무소에서 디자인과 더불어 경영이 차지하는 위치가 점점 커지고 있다. 성공적인 대중소 규모의 건축설계 사무소들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비전을 바탕으로 마케팅, 프로젝트 계획, 직원들에 대한 보상, 재정 경영, 변화에 대한 유동성에서 독특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다. 그 중 프로젝트에 관련된 전략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단기간 신속성을 요하는 계획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한다. 2.수준 평가 기준을 설정하여 업무를 평가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3.프로젝트팀은 소집단으로 묶어 원만한 커뮤니케이션과 작업 흐름을 도모한다. 4.예산에 관한 업무를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 경영 자료를 예산과 연결시키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5.업무수행과 시공 방법에 대한 자사의 사전을 만든다. 6.회사가 맡기에 너무 규모가 작은 프로젝트들을 담당하는 별도의 그룹을 만든다. 7.두개의 팀이 공동으로 작업하여, 첫 번째 팀이 우

선적으로 책임을 지는 반면 두 번째 그룹이 품질관리와 인원보장을 맡는다. 8.공정, 경영, 업무 수행에 관계한 일관된 접근법을 제공하는 공정 안내서를 만든다. 9.디지털 테크놀로지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고용인, 자문가, 건축주들과 통화한다.

연속기획 - 도시의 주거단지 계획

신 도시주의자들의 이상적, 전통적인 주거단지 계획이 그 2세대들에 의해 다시 등장하고 있다. 1991년에 결정된 그들의 “아와니 강령”은 이러한 주거단지 계획이 주거, 상점, 직장, 학교, 공원, 공공서를 모두 유기적으로 포함하면서 가급적 도보나 자전거에 의해 이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 다양한 경제계층과 나이층이

공존하는 것, 공원, 녹지, 광장 등의 유형으로 개방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근래에는 도심과 제3세계에서도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예로 미국 플로리다의 훔타운 계획, 에콰도르의 인케 마을 계획, 미국 미시간의 웨버 블록, 미국 워싱턴 주의 머서 아일랜드 타운 센터, 미국 일리노이의 파크사이드 등이 소개되어 있다.

기타

▶메탈 루핑에 대한 기술적 정보 ▶CAD 업계의 구조와 현황 ▶신제품으로 빛을 발산하는 유리 블록, 각종 마감 재료들이 소개되어 있다.

A+U

97년 2월호

이번호에서는 J. Fuses, J. M. Viader의 헤로나 대학 본부건물의 증·개축과 Abalos & H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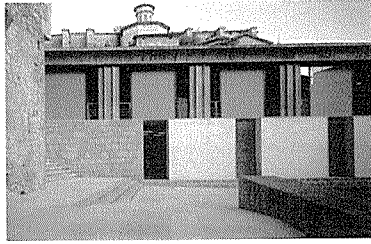
ros의 Gordillo House를 포함한 5작품, Alex Wall의 그들에 대한 에세이, Kerry Hill의 호텔건축 3제와 주거건축 2제를 다루고 있으며 그의 작품에 대한 에세이는 Tan Hock Beng이 맡았다. 그 외 1996년 바르셀로나에서 있었던 UIA 회의에 대한 Clara Jimenez Xiberta의 보고서 '도시에 있어서의 건축의 현재와 미래'가 실렸다.

Josep Fuses, Joan Maria Viader

▶ 헤로나대학 메인빌딩의 증·개축 (스페인, 헤로나 1987-1994)

작가가 증개축에 참여한 건물은 "Les Aligues"라 불리는 건물로 16세기대부터 헤로나의 전형적인 공공건축물로 인식되어져 왔다. 17세기에는 대학건물로 쓰여졌으나 그후 방치되기까지 여러 용도로 쓰여져 왔다. 증·개축작업이 시작되었을때 이 건물은 폐허의 상태였으며 오직 성 도미니크 광장에 면한 메인 파사드와 넓은 교회의 파사드만이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다. 중정을 중심으로 기존의 파사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건물동과 기능들을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졌다. 작가는 이 건물 주위에 잔존해 있는 것들-로마네스크의 벽, 14세기의 벽, 바로크양식을 보이는 도미니크 수도원, 그리고 16세기 대학의 모습을 보이는 장대한 파사드-이 시대를 달리함에도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정숙감과 평안히 감싸여진 일체감을 갖고 있는것에 대해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회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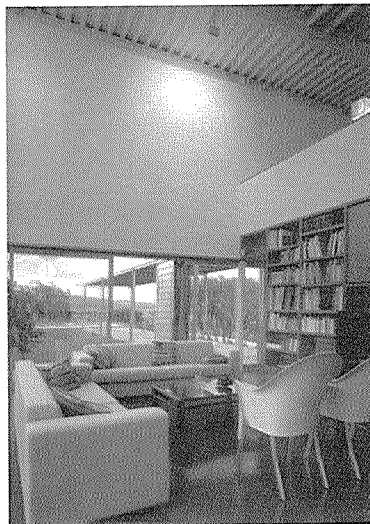


헤로나대학 메인빌딩 증·개축

Inaki Abalos & Juan Herreros

▶ Gordillo House (스페인, 마드리드 1993-1995)

이 주택이 랜드스케이프에 적극적으로 호응하기 위해 이 건물의 매스는 단순한 육면체로 정해졌다. 평면은 코어를 중심으로 각 실이 연속되어지게 배치되어 있다. 실용성과 거주성을 중시한 이 주택은, 전통적인 현실성을 배제하지 않으면서 가정적인 면을 살리고 있는 기능적인 집이다. 이 주택의 성격을 잘 말해주는 또하나의 말은 '(안에서)보는 것은 가능하다 (밖에서)보여지는 것은 불가능한 집'이다.



Gordillo House

▶ Town Hall and Cultural Center (스페인, 코베냐 1993-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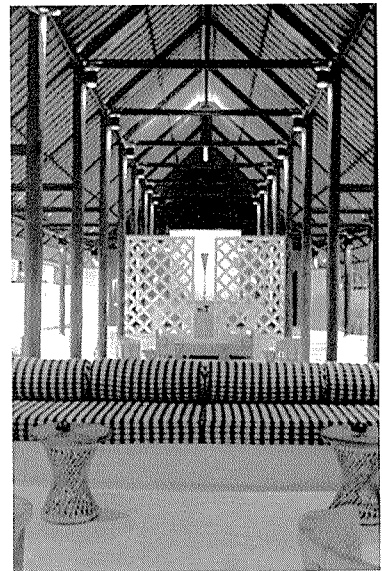
이것은 근접한 비행장의 영향으로 급성장한 사회변화에 발맞추어 코베냐에서 계획한 시청사와 문화센터이다. 불행히 이 시설물은 몇개로 쪼개어져 실현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주변의 컨텍스트에 맞추어 가는 것이 작가에게 가장 커다란 과제였다. 작가는 건물의 성격을

결정짓는 과정에서 러시아식의 미니어처를 재현한듯한 기념비적 건물과 모더니티 사이에서의 갈등을 중립적인 자세를 취함으로써 해소해 냈다고 한다.

이 외에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이는 내무성의 본관빌딩 (스페인, 마드리드 1991-1993) ▶주변의 스페니쉬 기와를 엮은 집들과 대조를 보이는 정방형의 Municipal Gymnasium (스페인, 시만카스 1989-92) ▶Usera의 Public Library에 대한 계획안이 소개되었다.

Kerry Hill

인도네시아, 말레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에서 활동한 그의 작품들에서는 모더니티와 그 지방의 문화적 정취를 모두 맞볼 수 있다. 그의 호텔작품들은 동남아의 이국적 향취로 가득차 있으며 싱가포르의 오피스 빌딩은 심플하고 세련된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



The Serai-Resort Hotel

▶The Serai-Resort Hotel (인도네시아, 발리 1991-1994)

이 호텔은 저예산의 여행을 즐기는 여행자를 위하여 계획되어졌다. 2층건물 4개동으로 구성된 이 호텔은 건물 어디서라도 거대한 수영장과 해변을 조망하는 것이 가능하다. Serai에서는 이 고장 고유의 천연 재료가 사용되고 있다. 코코넛 나무나 오크색 석재, 대나무, 티크 등이 그것이다. 또한 전통적인 지붕모양과 개방된 공간은 발리섬의 이국적 정취를 느

끼게 하고 있다.

▶The Datai-Resort Hotel (말레시아, 프라우 랑카위 1989-19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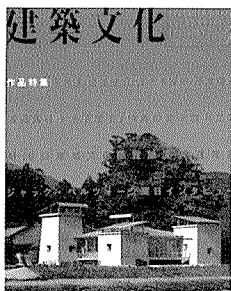
750ha에 걸쳐진 열대우림속에 위치한 이 호텔의 대지는 4개의 중요한 자연적 요소를 갖는다. 바다, 해변, 열대림, 그리고 잘 발달된 에코 시스템이다. 건축가는 손상되기 쉬운 자연경관을 위해 호텔의 위치를 통상적인 리조트 호텔의 위치인 해안가에서 300m 후퇴하여 해발 40m의 열대림 속에 자리잡게 하였다. 그 대신 수영장과 바를 포함한 비치클럽을 해안에 건설하였다. 마찬가지로 현지의 재료를 많이 사용하였으며 건물의 매상을 줄이고 각 요소요소에 세심한 신경을 기울여 전체적인 외관의 크기를 감소시키는데 노력하였다.

이 외에 ▶깊이있는 벽체와 그 사이로 도입되는 빛이 아름다운 The Chedi - Hotel (인도네시아, 반덩 1991-1993) 과 ▶Pulai Spring - Apartment (말레이시아, 조호 바루우 1994-진행중) ▶Office and Apartments (싱가포르 1993-건설중)이 소개되었다.

건축문화

97년 2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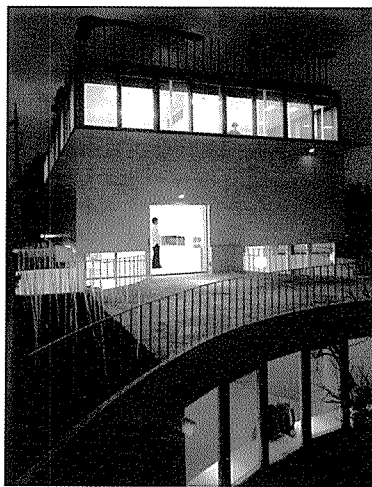
이번호에서는 작품특집으로 아오끼 준, 사토오 토시히로, 타카오 후지끼, ADH Architects, 세지마 카즈요와 니시자와 류의 작품들이 소개되었으며 Jacques Herzog 와의 인터뷰, 그리고 제30회 건축문화 논문공모의 입상작들에 대한 소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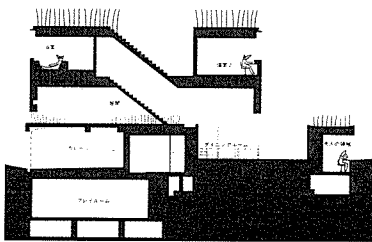
작품특집

▶O (아오끼 준 설계)

2층 바닥의 높이는 기존의 담의 높이와 맞추어져 있다. 거기서 뛰어내릴 수 있을 만큼 지면에서 가깝다. 어느 공원의 바닥을 옮겨놓은 듯한 2층 바닥면은 지면과 연결되어 어디까지라도 확장되어갈 것처럼 느껴진다. 대지 전체를 기반으로 만드는 일, 이것이 O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이다. 기단에 4개의 원형 구멍이 만들어지고 이들 원형의 벽들은 대지 한계선까지 닿아 있으며 건물의 안으로 파고들기도 한다. 수평적 시선의 확장과 함께 드림형의 공간을 통해 수직의 공간적 확장도 경험케 하고 있다.



O(オ)



단면도

▶K빌딩 (ADH architects)

물품의 반입, 방문자의 진입, 16번 국도의 소음 등을 클라이언트와 상의한 결과 1층은 창고, 2, 3층중 16번 국도에 면한 부분을 오피스, 북측의 주택가를 면한 쪽을 사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공기(共起)와의 관계에서 구조는 철골조로 결정되었다. 전반적으로 차가운 느낌을 주지만 다양하고 세심한 재료의 선택으로 단조로움을 피하고 있으며 사원들의 주거부분은 온화한 느낌을 주

도록 하고 있다.

▶멀티 미디어 공방 (세지마 카즈요+니시자와 류)

현립학교의 부속시설인 이 건물은 미디어 아트에 종사하고 있는 아티스트들이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작품을 뿐만 아니라 그 창조활동을 함께 일반인과 학생들에게 공개하는 장소이다. 광대한 녹지의 캠퍼스 내에 건설된 이 건물은 높은 층고를 갖는 스튜디오나 아틀리에로 인하여 상당히 커다란 볼륨을 갖게 되었다. 수평적인 주위경관과 보조를 맞추기 위하여 건물전체를 1.8m가량 지하로 묻었으며 옥상광장의 입구를 통한 진입이 제시되었다. 이 옥상 광장은 입구광장인 동시에 옥외전시나 축제 등의 이벤트가 벌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작가들은 전체의 구성에 있어서 녹지의 캠퍼스나 옥상광장을 포함한 각각의 스페이스가 일정한 서열이나 상하관계를 갖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 놓이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제30회 건축문화 논문공모 입상작 발표

'慣性飛行'이라는 과제가 주어졌던 이 공모전에 下出賞(대상)에 '영화, 아트, 건축'이라는 부제가 달린 '관성비행'을 출품한 토시나가 쓰요시씨(29)가 당선되었다. 가작1席에는 같은 제목에 '건축'이라는 우주선과 사회라는 우주'라는 부제를 단 나루세 노리유키씨(25)의 논문이, 가작2席에는 카와이 에이스께(25)씨의 'P-는 P-'가 선정되었다.

Interview - Jacques Herzo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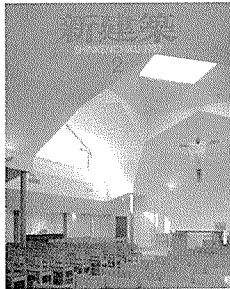
Herzog & de Meuron은 Swiss Federal Institute of Technology와 ETH를 졸업한 동료들로 구성된 그룹이다. 1978년 이들이 Basel에 그들의 오피스를 처음 연 이후 스위스의 프로젝트에 전념하고 있는 오늘날까지 이들은 국제적 관심을 받아왔으며 특히 런던의 Tate Gallery of Modern Art의 국제현상공모에서 커미션을 얻음으로써 그 명성을 떨치게 되었다. 이들은 최근 일본에서 그들의 작품전을 가졌으며 이를 계기로 그들의 건축과 도시계획에 관한 비

전에 대해 미야게 리이찌와 토론하게 되었다.

신건축

97년 2월호

작품소개로는 와세다대학 이시아마 오사무 연구실에서 설계한 '히로시마 하우스', '觀音寺'와



토오끼 신의 '오가야마현 생물과학 종합연구소' 등 22개의 작품이 소개되었으며 특별기사는 '밀레니아 싱가포르 (Millenia Singapore)/ 싱가포르의 새로운 스카이라인'이 다루어졌다. 연재물로 'TOKIO계획 1997'과 '新·CAD 강좌'가 연재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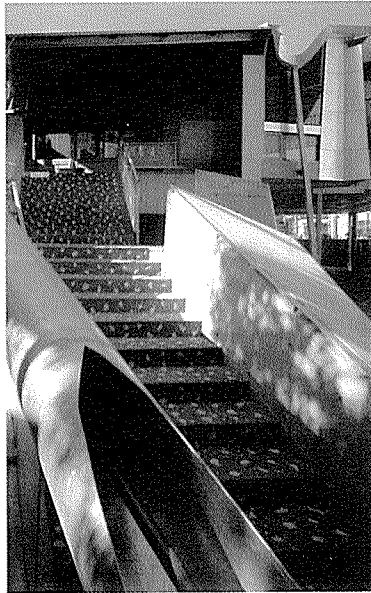
작품

▶觀音寺 (와세다대학 이시아마 오사무 연구실 설계)

작가는 이 건물을 無形의 형태를 지닌 건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동경의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잡은 이 절은 불규칙한 대지의 모습 만큼이나 그 모습이 기괴하다. 작가는 이 모가난 삼각형 모양의 대지와 만나게 되므로써 자신의 '형태에 대한 공부'가 시작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

▶토오따 종합병원부속 노인 보건 시설 (와따베 카즈오 설계)

전체적으로 산뜻한 느낌을 주는 이 노인 보건시설은 중량감있는 형태를 피하여 주위의 산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랭지라는 기후조건을 감안하여 채광에 많은 신경을 썼으며 '(단체)시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그의 작가가 유의한 점들을 들자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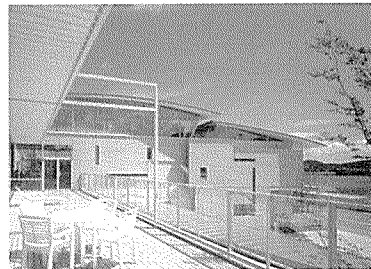
觀音寺 계단

1. 열린시설 만들기 2. 단계적 그룹화와 선택성-가장 개인적인 공간에서부터 공공의 공간에 이르기까지 단계적 공간의 그룹화를 도모했으며 식사의 공간을 선택할 수 있는 등의 공간의 선택성을 높였다. 3. 공간의 연속성과 창의적인 생활리듬의 확신 4. 확장에 대응하는 다양한 거실형태 5. 고령자를 위한 특별한 시설계획-각각 객실에 세면·위생시설 설치, 자연환기와 더불어 가동되는 환기 시스템, 오존 유니트의 설치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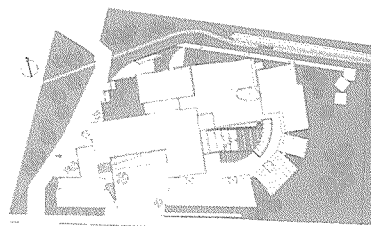
특별기사

▶밀레니아 싱가포르

이번에 소개된 '밀레니아 싱가포르 프로



토오따 종합병원부속 노인보건시설



배치도

젝트'는 인접한 호텔과 쇼핑센터를 축으로 하는 '마리나 스퀘어'와 오피스를 중심으로 하는 '썬 텍'의 블록, 현재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문화시설인 '디 에스프라나도'로 마리나 센터를 구성하고,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썬트 웨이, 시청 주변을 하나로 묶어 '다운타운 코어'를 만드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되어 소개되어진 작품들은 다음과 같다.

▶ The Ritz-Carlton, Millenia Singapore (Kevin Roche John Dinkeloo & Associates) ▶Millenia Tower (Kevin Roche John Dinkeloo & Associates) ▶Centennial Tower (Kevin Roche John Dinkeloo & Associates) ▶Conrad International Centennial Singapore (John Burgee & Associates) ▶Millenia Work (Philip Johnson /John Burgee & Associates)

연재물

▶TOKIO 계획 1997 - Project 02 Junction City

자동차는 새로운 진화를 하고 있다. 21세기에는 크게 그 모습을 바꿀 것임에 틀림없다. 건축이나 도시도 역시 차세대 자동차와의 새로운 공존의 형태를 모색해 가면서 진화할 것이다. 'Junction City'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junction'과 하우징이 복합 진화한 컴플렉스 인프라 스트럭처의 구상인 것이다. 퍼스널한 개인공간이 끊이지 않고 움직이며 변화하는 새로운 도시공간은 여태까지 없었던 City Scope를 만들 것이다.

(번역/최원준, 강상훈)